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8월의 삼복 더위도 잊은 채, 십지품을 설치하기 위해 타화자재 천궁의 마니보장전(摩尼寶藏殿)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다. 금강장보살이 큰 지혜로 밝게 빛나는 삼매에 들었다가 부처님께 금강장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가피를 주시자, 삼매에서 깨어나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심지의 이름을 설하였다. “첫째는 환희지도 둘째는 이구지도... 열째는 법운지도이다.” 이어서 “십지법문은 보제(擲擲)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문이다.” 이렇게 설하고는 묵연히 계시니, 대중들이 해탈월(解脫月)보살을 필두로 간절하게 법문을 청한다. 이른바 삼가오청(三家五請)이다. 먼저 해탈월이 청법하고 대중이 청하고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법

와 비슷한 경우를 <법화경(法華經)> 방편품의 ‘삼지삼청(三止三請)’을 통해 볼 수 있다. 법화회상에서는 성문제자 중 상수인 사리불(舍利弗)이 대중을 대신하여 간절한 청법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살제자 중 상수가 법문을 청하고 있다.

이어서 불법의 어렵고 미묘함을 비유로 송하기를, “하공에 그려 놓은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으면 분별하거나 보기가 매우 어려워 / 수행이 오래잡고 지혜가 알아 의식(意識)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애어 이 법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타락 그들이 불쌍하여 해석 않노라.

바닷물과 검화중(劫火中)에 있게 되어 이 법을 듣자 울 수 있으려니와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 듣지 못하리.”



그림·문병성

유전공학 성과 성과

불교와 과학 <38>

192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유색인종과 빈민 유럽인들이 폭증하자 미국 정부는 앵글로-색슨계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를 노골화하면서, 우생학적 차별을 전제로 한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민제한법 시대 이전인 1911년에서 1931년까지 미국은 3C계 주에서 정신박약인의 강제불입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이런 악법은 60년대 들어와 대부분 주에서 폐기되었으나 버지니아 주에서는 70년대까지 강제 불입시술이 강행됐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정신박약인들이 강제 불입시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그러했고 스웨덴에서는 그 수가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악명 높았던 독일은 40만 명 이상을 강제 불입시켰고 나중에 그 대부분을 학살하기까지 했다.

1997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마래를 꿈꾸는 많은 과학 실험자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다. 체세포 복제란 기존의 유전자들이 해 있던 생식세포 복제와 달리 손오공의 머리 한 움큼을 인공으로 붙여서 동일한 손오공을 수없이 만든다는 이야기와 원리적으로는 같다. 이런 유전공학의 성과는 결국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극단적인 자아 정체성의 철학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사회적 책임의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가 실용화 단계에서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다. 과거 우생학이 가져다준 사회 윤리의 괴멸은 기본적으로 생식세포의 변형을 통한 과학의 무책임성에 있었지만, 이제 체세포 인위적인 교체를 시도 하는 유전공학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생명윤리의 괴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2만개의 염기서열 구조의 암호를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 불치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생각하면 분명히 유전공학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러한 과학적 성과들이 순수한 목적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목적으로 도용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그래서 인간복제 혹은 신 유전공학의 이종간 교배와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현대 유전공학의 결과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적 성과들이

상업주의의 농락에 오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벌써 유전자 암호 해독 연구를 전담하는 대규모 사기업이 나왔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돈 받고 팔고 사는 행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신문에서 볼 수 있다. 유전공학의 성과들이 현실에 응용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너무 확연하게, 그리고 너무 인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눈에 난 피는 벼에는 나쁘지만 전체 생물 생태계에서는 피 나뭇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눈의 피는 전체 생태계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인간의 가치기준으로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서구사에서 보았듯이, 특정 집단의 배타적 우월의식에서 좋고 나쁜의 가치평가를 내림으로써 우생학적 편견을 낳은 것과 같은 인간사회의 역사적 모순들이 반복될 수 있는 과학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새끼 돼지 저금통의 역사는 미국 캔사스 주에 살았던 한 어린아이가 어떤 한센병(나병) 환자를 위해 작은 동전을 모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치가 혹독하게 다른 정신박약인이나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우생학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감으로써 이질감보다는 동일감을 갖게 하는, 한 어린이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조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몸은 더럽지만 땅을 기름지게 하며, 구름은 어둡지만 생명의 비를 내리준다. 곰팡이는 균을 퍼트리지만 모든 것을 썩혀 깨끗하게 해준다. 지렁이는 징그럽지만 중금속을 분해하여 흙을 살아나게 한다. 양귀비꽃은 그렇게 매혹적이지만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킨다. 산소가 없다면 숨을 못 쉬어 곧 죽게 되지만 그 산소가 바로 세포의 노화를 가져다 준다. 잡초라고 해서 다 뽑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밤상 위의 맛갈 나는 썸바귀와 쇠비름이었다. 오존이 대기권에 있으면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명의 차양막이 되지만, 그것이 땅 근처에 있으면 치명적인 광화학 산화제 오염물질이 된다. 사랑니도 다 있을 만하니까 있는 것이고, 뱃속의 대장균도 다 있을 만하니까 있는 것이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 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제의 우생학이 아니라 ‘공존의 생태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전부 불교의 이야기 기를 대신 한 것 같다.

새끼 돼지 저금통의 역사는 미국 캔사스 주에 살았던 한 어린아이가 어떤 한센병(나병) 환자를 위해 작은 동전을 모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치가 혹독하게 다른 정신박약인이나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우생학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감으로써 이질감보다는 동일감을 갖게 하는, 한 어린이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조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세계 축구장 누비며 “고국에 자유” 호소

지구촌 불교 / 티베트 축구대표팀

자유 티베트’를 실현하려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노력은 정치, 문화 영역에서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1일 덴마크 코펜하겐 교외에 있는 반로세(Vanlose) 스타디움에서 티베트와 그린란드(Greenland) 대표팀간의 축구 경기가 열렸다. 티베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니브란트(M. Nbrandt) 감독의 1년 남짓한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이번 경기는, 4천여 유럽인들이 스타디움을 가득 매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은 티베트와 그린란드의 국기를 흔들며 ‘가자! 티베트로 (Go Tibet)’라는 구호와 함께 티베트 대표팀에게 갈채를 보내며, 독립을 위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티베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98년 팀 창단 때부터 감독을 맡아 온 니브란트 감독은 “이번 경기에는 티베트가 중국 정부의 방해와 FIFA의 무관심을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특히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의 집요한 압력에 굴하지 않은 덴마크 정부의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는 덴마크 수상과



◇그린란드와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티베트 축구선수들.

98년 인도·유럽 난민 26명 주축 창단 중 방해·FIFA 무관심 속 90여회 경기

스무센(P. N. Rasmussen)과 축구협회장 한센(J. S. Hansen) 등을 번갈아 만나며 “티베트는 중국의 한 자치구에 불과하고, 티베트 축구팀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들과의 경기는 덴마크와 중국의 관계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FIFA는 “정치적 문제에 스포츠 기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경기를 주관한 덴마크 축구협회가 국제적 파장을 우려해 두 팀의 경기 계양을 생략한 채 국가(國歌)만을 연주했다는 것은, 덴마크와 중국 정부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경기는 그린란드의 4대1 승리로 끝났다. 티베트 대표팀은 전반 11분 포워드 노르부르(R. Norbu)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이후 그린란드의 골키퍼 플라이쇼크(K. Polajshov) 등에게 4골을 내주는 등 큰 기량차를 드러내며 완패했다.

98년 인도, 네팔, 유럽 등지에서 살고 있는 26명의 티베트 난민을 주축으로 창립된 티베트 대표팀은 99년 이탈리아에서 첫 경기를 가진 이래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국제 경기를 가졌다. 이번 대회 이후 티베트 대표팀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 미국과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창단 멤버인 티베트 공격수 다르갈(D. Dargal)은 “우리는 승패를 떠나 티베트 국민과 독립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a.com

어떤 기쁨이 깨달음만 하라

간절한 청법·확고한 믿음 있어야 득도

을 청한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 어떤 곳인가? 육계(欲界)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다. 이곳은 날이 변화로 나타내는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참인(天人)이 사는 곳이다. 앞의 삼천위의 수행이 무르익어 심지(心地)의 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천인이다. 말하자면 월드 캠퍼십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수준 있는 선수들이 뛰는 선불장(禪場)이 아니겠는가?

“서로서로 쳐다보고 공경하며 모두들 한결같이 우러르기를 벌들이 좋은 꼴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이 갈보수를 그리워하듯 /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린 이 좋은 음식 생각하듯이 병난 이가 좋은 약 생각하듯이 별떼가 단 꿈을 좋아하듯이 /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보법론 들기를 원하노라이다.”

이처럼 어렵게 법문을 청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일까?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이긴 하겠지만 바로 화엄에서 십지법문(十地法門)이 가장 훌륭한 까닭이다. 이

두 번째 계승을 잠시 보자. <대해서장>의 그 유명한 답증개장(答證開狀)에서 서간법문으로 “깨달기를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지자가 스승에게 목살을 잡고 내동댕이쳐지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소개한 계승이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들은 불법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어떠한지 되돌아 볼 일이다. 간절한 청법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득도(得道)의 길은 열리는 것이니,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깨달음의 기쁨은 가장 뛰어나고 오래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간절한 청법 자세를 보여주는 다음의 계승을 보자.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 지리 아닌 데 <내>가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 능히 듣나니.”

이처럼 중생의 근기에 맞는 성불의 욕구를 풀어내기 위하여 다섯 번의 청법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리라.

■봉선사 능엄학원 연구원

지리산자락 우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웅덩이와 비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저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우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 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헹글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저 97기마를 넣은 뒤항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영속해 들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원저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교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요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돌연종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병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예언자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이해원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809호실)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문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청옥, 황옥, 백옥) 성불하십시오.

※ 순옥 조각계통 주문 제작 원영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황옥)

단주 · 168억주 · 함장주 두꺼비(청옥·황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이진억 명장: 이석규)
TEL : 031-527-6778 (팩스: 031-527-6778)
H P : 011-9046-6981
e-mail : LJU729@hanmail.net